



전시행정 치우쳐 과열 단속 민생범죄 되레 증가 부작용

되돌아 본 2013 ③ 4대악 척결

광주·전남 경찰서마다 홍보 물품구입비로 헛돈만

‘스티커, 스케치북, 형광펜, 볼펜, 자 등 문구세트에 컵·방석·부채·폴티슈·저금통·우산·풍선·호투라기·USB·효자손...’

광주·전남 경찰이 올 들어 ‘4대 사회악(惡)’(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근절 명분을 내걸고 사들인 물품 구매 목록이다.

올 들어 광주·전남 경찰이 정부의 ‘4대악’ 근절 정책에 발맞춰 대량으로 사들인 이벤트성 전시 홍보 물품 비용만 경찰서별로 200만~1800만원에 이른다. 광주·전남 지역에 내걸린 학교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등 이른바 다른 천편일률적인 플래카드도 수만 장이 넘는다. 반면, 현장에서 느끼는 서민 체감도는 미미했다.

광주·전남 경찰은 올 해 ‘4대 사회악(惡)’ 근절을 총력을 쏟았다. 이성한 경찰청장이 “4대악을 제대로 척결하지 못하는 지휘관에 책임을 물겠다”고 경고한데다, 경찰청이 우수 검

거 사례에 대한 특진 대상자 확대(40명→60명) 계획까지 내놓으면서 경찰서별 실적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다.

과열 분위기는 곳곳에 감지됐다. 당장, 경찰 본연의 업무가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농산물관리원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정·불량식품 단속에서 나서는 무리한 단속 사례도 잇따라 제기됐다. 월매출 500만원 이상 악의적 제조·유통 사범이 아닌, 영세 사범을 과잉 단속했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단속 뒤에 드러난 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2010년 이후 3년간 한 차례도 없던 불량식품 의심 증거물에 대한 DNA 분석의뢰가 29건에 달하는 등 급증했다. 경찰이 불량식품 단속에 나선 탓에 대출사기·보이스 피싱 등 본래 업무가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4대악 홍보 활동이 이벤트성 전시

행정에 치우치면서 민생 범죄가 증가하는가 하면, 치안 예방의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찰이 상반기 ‘4대악’근절에 치안력을 집중했지만 정작 국민 10명 중 2명만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또 경찰청이 112 신고나 교통사고 처리 등으로 경찰과 접촉했던 국민(7200명)을 대상으로 ‘2013 상반기 치안고객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광주 지방경찰청의 치안 만족도는 전국 16개 경찰청 중 13위에 그쳤다.

경찰의 4대악 척결 기간이던 지난 2월 25일~5월 20일까지 발생한 5대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북부경찰청의 경우 이 기간 ‘4대악’으로 규정된 성폭력 사건이 82건 발생, 전년도 같은 기간(56건)에 비해 부쩍 늘었다.

같은 기간 목포에서는 35건의 강간·강제추행 사건이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20건)을 훌쩍 넘어섰고 순천경찰청도 이 기간 28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 지난해(21건)에 비해 늘어난 등 경찰의 ‘4대악’ 척결 의지를 무색케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용봉제 원앙가족 겨울나기

17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 전시관 뒤편 용봉제의 원앙들이 추운 겨울날씨에도 불구하고 미처 제철을 맞지 않은 양 유영하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내년부터 고교생 한국사 두학기 배운다

매학기마다 체육수업도

내년에 입학하는 고등학생들은 한국사를 2학기에 걸쳐 배우고 매학기 체육 수업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역사교육 강화, 학교체육 활성화 등 주요 교육정책을 반영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개정,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총론을 보면 고등학교 한국사 필수이수 단위가 현행 5단위(1단위 주 1시간)에서 6단위로 늘어나고 한국사 수업

이 2개 학기 이상 걸쳐 편성된다. 고등학교의 체육 필수 이수단위가 10단위 이상으로 확대되고, 일반고뿐 아니라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 등 모든 고등학교에서 체육 수업이 매학기 편성된다. 중학교에서는 주당 2시간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운영하는 학년의 경우 1시간을 체육 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일선 고등학교에서 논술 수업을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도록 생활·교양 교과 영역의 선택과목에 ‘논술’이 추가됐다. /연필뉴스

공무원 채용시 일반의사는 5급, 치과·한의사는 6급이라고?

광주 각 구청 ‘직급별 차별대우’ 반발...의사 갈등 표면화

북구의회 정원조례 개정안 수정 의결...직급 조정 않기로

일반 의사와 치과·한의사는 각 구청 보건소 직원으로 채용될 때부터 차별대우를 받는다. 이른바 ‘직급 차별대우’다. 이들은 같은 의사이면서도 일반 의사나, 치과·한의사는 10단위 이상으로 확대되고, 일반고뿐 아니라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 등 모든 고등학교에서 체육 수업이 매학기 편성된다. 중학교에서는 주당 2시간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운영하는 학년의 경우 1시간을 체육 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일선 고등학교에서 논술 수업을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도록 생활·교양 교과 영역의 선택과목에 ‘논술’이 추가됐다. /연필뉴스

가 직급 조정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지방공무원 인용령에도 일반 의·치무는 5급 상당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북구는 직급 조정 요청을 받아들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북구가 의회에 제출한 일부 조례 개정안엔 현재 6급 상당인 치과 의사의 직급을 5급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됐다. 직급 조정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의회는 치과 의사에 한해 직급을 조정할 경우 한의사와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수정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는 의회의 결정을 수용, 재의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구는 북구의 결과를 지켜본 뒤 치과·의사 직급 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을 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되면서 일부 조례 개정안 상정을 미루고 있다.

이런 일로 일반 의사와 치과·의사·한의사 간 갈등만 부추기게 됐다. 치과·의사는 치과·의사대로, 한의사는 한의사대로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인식의 깊이가 새겨졌기 때문이다.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들의 반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광주지역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모두 22명이다. 이중 ▲일반 의사 12명 ▲치과 의사 5명 ▲한의사 5명 등이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35분 해질 17시 23분 달돋이 18시 20분 달질 07시 52분

추위 다스 풀러
구름 많은 가운데 밤부터 다시 추워지겠다.

광주	구름때움	1/8°C
목포	구름때움	1/6°C
여수	구름때움	4/7°C
나주	구름때움	0/8°C
완도	구름때움	3/8°C
구례	구름때움	1/8°C
강진	구름때움	1/8°C
해남	구름때움	1/8°C
장흥	구름때움	1/9°C
순천	구름때움	4/8°C
영광	구름때움	-1/7°C
진도	구름때움	2/8°C
전주	구름때움	1/8°C
군산	구름때움	0/7°C
남원	구름때움	0/8°C
옥산도	구름때움	5/6°C

〈오전〉 바다 풍향 파고 김기시수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1.0~2.0m 높음 낮음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5~2.5m 2.0~4.0m 높음 낮음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목포 02:19 07:43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여수 09:46 03:14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3.0m 21:45 15:48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9(목)	20(금)	21(토)	22(일)	23(월)	24(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1/3	-3/4	-2/5	-3/6	-1/7	-1/8

5·18 진실 알리는 역사만화 나왔다

광주시, '제국의 안습' 발간...왜곡·편협사실 바로잡아

광주시가 왜곡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진실을 알리기 위한 역사만화책 '제국의 안습(사진)'을 17일 발간했다. 총 96쪽 분량의 이 만화책은 중학생 3명이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학생창작공모전'에 출품할 애니메이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은 폭동이 아니라 신군부의 폭압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의로운 시민항쟁이고 당시 광주 시민들이 주먹밥을 나누고 헌혈을 자청하는 등 높은 공동체 의식을 보여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만화는 총 4000부가 제작돼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308곳과 전국 국·공립도서관 869곳에 배포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lucky@

해남땅끝호텔

일출과 일몰, 그리고 다도해가 어우러지는 곳- 바다 위의 휴식처 해남땅끝호텔

하늘과 맞닿을 듯한 위치에 자리 잡은 해남땅끝호텔은 우형리 공룡박물관, 이순신 평양대첩, 송호해수욕장, 망골관광단지, 보길도, 달마산, 두륜산도립공원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휴식공간입니다.

영산재·오동재가 있다.

한옥호텔 영산재와 오동재의 대청마루에 앉아 차시이로 열린 하늘을 바라보자면 차마 끝에 매달린 내 시를 한 조각 바람 되어 멀리 날린다. 긴 세월 영산재와 오동재를 휘돌아 오는 청아한 바람내음은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코골을 스치고 유달산과 영위산에서 불어쳐 나오는 맑은 정기는 애마른 나의 영혼을 적시어 새 희망을 잉태시킨다.

536-924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1227-1
Tel.061-530-8000 Fax.061-530-8003

영산재: 위치, 전라남도 영암군 신흥읍 나불리 292 ■ 예약 및 전화문의, 061460-0300
오동재: 위치,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394-5 ■ 예약 및 전화문의, 061660-1000